

안와상경피자극기를 이용한 편두통 예방

무작위 대조군 연구

Migraine prevention with a supraorbital transcutaneous stimulator

A randomized controlled trial

Jean Schoenen, MD, PhD
Bart Vandersmissen, MD
Sandrine Jeanette, MD
Luc Herroelen, MD
Michel Vandenheede, MD
Pascale Gérard, PhD
Delphine Magis, MD, PhD

목적: 편두통 예방에 있어 안와상경피자극기(Cefaly, STX-Med., Herstal, Belgium)를 이용한 삼차 신경의 신경 자극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이 연구는 벨기에의 5개 3차 두통클리닉에서 시행된 이중맹검, 무작위, 위약-대조군 연구이다. 한달 이후, 월평균 2회 이상의 편두통 발작이 있는 환자는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1:1 무작위 배정되었고, 3개월 동안 하루 20분씩 자극기를 적용하였다. 일차 결과변수는 한달 동안 편두통이 발생한 날짜와 50% 응답자 비율로 하였다.

결과: 67명의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였고, 치료 목적 분석(intention-to-treat analysis)에 포함하였다. 초기와 치료 3개월 사이에 평균 편두통이 발생한 날짜는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(6.94 vs 4.88; $p=0.023$), 대조군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(6.54 vs 6.22; $p=0.068$). 50% 응답자 비율은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(38.1% vs 12.1%; $p=0.023$). 월평균 편두통 발작 횟수($p=0.044$), 두통 일수($p=0.041$), 그리고 편두통약 복용 횟수($p=0.007$)는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. 두 그룹 모두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.

결론: 연구에서 사용된 기구를 이용한 안와상경피자극은 편두통의 예방적 치료로 효과적이며 안전하다. 그러나 치료 이점은 26%로 이 수치는 다른 약물이나 비약물 편두통 예방치료에서 보고된 범위 이내였다.

Neurology® 2013;80:697-704